

근로자 건강진단의 활용 방안

임 현 슬

동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정기 선별 건강진단은 질병을 초래하는 위험 요소를 결정하거나 그 질병을 조기의 무증상 시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고안된 검진 계획으로 표면상 건강하고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실시한다. 이에 반하여 완전한 진단적 조사인 확인 건강진단은 선별 건강진단에서 이상 소견자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기 건강진단의 주목적은 예방으로 질병이나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또는 증상이 심해지기 이전에 질병이나 건강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고 조속히 치료하도록 하여 본인의 건강 관리는 물론 타인에게 파급될 우려도 배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건강진단이 자신의 건강 문제를 알기 전에 초기 단계의 숨은 질병이나 불건강한 상태 또는 위험 인자를 발견하는 것임에 반하여 확인 건강진단은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해석하여 환자의 건강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임상적 판단을 내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정기 건강진단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도 그 문제와 무관한 건강 문제를 알아내기 위하여 일상적인 진료에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건강관리도 근로자 정기 건강진단이 주도적 역할을 하여 왔다. 초기에는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1983년 근로자 건

강진단 실시 규정이 노동부 예규로 제정되고 거의 매년 개정되면서 현재는 질병이나 건강장애의 조기 발견에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 근로자 건강진단은 적정 배치 및 개인 건강에 대한 기본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시 건강진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생산 능력에 관련되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 유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및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임시 건강진단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 정기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공식적인 자료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질병의 조기 발견을 통한 2차 예방의 차원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 건강진단은 선별 건강진단인 일차 건강진단과 확인 건강진단인 이차 정밀 건강진단으로 나뉘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진단은 학교 건강진단, 피보험자 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 등의 집단 검진 제도가 있고 각급 병원에서 여러가지 검사를 함께 묶어 실시하는 종합 건강진단이 있다. 근로자 건강

진단은 피보험자 건강진단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은 불신하는 경향이 있어 건강진단의 결과의 활용이 미비하다. 근로자 건강진단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의사에 의하여 수행되는 피보험자 건강진단은 수검자가 자신의 건강관리에 건강진단 결과를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종합 건강진단은 몇가지의 암을 발견할 가능성은 있으나 단편적이며 비용이 비싼 단점이 있으나 수검자가 이의 활용에 적극적이다. 근로자 건강진단은 계속 보강되면서 체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불신으로 인하여 사용에 제한이 되고 있다.

모 지역에서 1989년 특수 건강진단에서 난청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사람중에서 10.0%만이 1년 후 건강진단 결과를 올바르게 알고 있었다. 또한 1991년도 고혈압 및 간질환 유소견자중에서 자신의 1년 후 건강진단 결과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1.3%에 불과하였고, 진단명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이중 95.0%였다. 1989년 모 지역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 건강진단에서 발견된 고혈압 환자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8.8%가 자신이 고혈압 환자로 판정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 이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생산직 근로자보다 더 높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으며, 본인에게 검사 결과의 통보도 오래 전부터 정착되어 있으나 근로자 건강진단의 경우 본인에게 통보가 의무화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근로자 본인의 관심도도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보건관리자에 의하여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건강진단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근로자의 일반질환과 직업성 질환을 발견하는데 기여를 해 왔으나 질환 발견후 추후관리에는 기여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건강증진이나 질환

의 조기발견에도 제한적이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직업성 질환의 판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건강진단을 통한 건강관리는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다수 인원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업병을 포함한 각종 질환을 조기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치료와 관리에 적절히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건강진단은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근로자들이 건강진단의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신뢰도와 타당성이 근로자 건강진단 보다 더 나은 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건강진단의 결과가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근로자 건강진단은 아직도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러므로 건강진단을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그 질적인 면에서 향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이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현 건강진단의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를 개인이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과의 통보가 단순한 통지에 그쳐서는 안되며 질병에 대한 교육과 유소견자에 대한 실질적인 건강관리 상담이 있어야 하며 상담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교육용 팸플렛이 배부될 수 있어야 한다.

단면적 건강진단 결과의 근로자 개인의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적어도 자신의 건강이 수치상으로 정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2) 시력, 청력의 수치로서 안경이나 보청기 사용 대상자임을 알 수 있다.
- 3) 질병의 주의자로 나오면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 습관의 적극적인 실천자가 될 수 있다. 표준 체중 유지, 금연, 금주, 규칙적 운동, 식생활의 개선,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일반 질병의 발견에 도움이 되며, 적극적인 건강생활 습관의 실천과 치료를 받는다. 일반질환은 직업병의 한 임상소견으로 발현되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질환의 존재는 근로자의 직업병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거나, 직업병의 진행 경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직업병 역학조사를 위해서 일반질환의 유병률은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근로자에서 유병률이 높은 일반 질환은 그 자체로 근로자 건강수준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건강의 직접적인 척도로써 유용하다. 일반 질환은 유소견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추후 관리에 대한 대책이 뚜렷이 제시되지 않았고, 그 의의 역시 충분히 평가되지 못한 면이 있다.

5) 직업성 질병의 진단, 판정, 보상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근로자 개인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결과를 보관하여 연도별로 비교해 본다면 건강진단 결과의 활용 영역은 보다 확대된다.

횡적 건강진단 결과의 근로자 개인의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적어도 자신의 건강이 수치상으로 계속적으로 정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수치의 변화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건강생활습관의 실천자가 될 수 있다.

3) 건강생활습관의 집단적 실천의 효과 판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4) 수치의 변한 이유를 찾으면서 치명적인 질환의 조기발견이 가능하다. 시력 변화에 따른 백내장과 녹내장의 발견, 빈혈을 통한 치질과 위암의 발견, 알파 휘토 단백질의 변화에 따른 조기 간암의 발견, 고혈압 원인 추구를 통한 질병 발견 등이 가능하다.

5)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판정, 보상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단면적 건강진단 결과의 검진기관의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습관의 집단적 실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건강의 위해를 초래하는 환경적인 측면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에 못지 않게 개체의 적응력의 향상이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직장내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직장 전체의 금연 지역화, 회식 문화의 변화를 통한 금주 운동 및 직장 체육의 활성화 등이다.

2) 부서별, 유해물질별, 회사별로 유병률을 비교하여 대략적인 원인 및 직업관련성 질환, 직업병을 발견할 수 있다.

4) 작업환경 개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건강진단이 목표하는 질병의 조기발견을 통한 2차예방을 위해서는 질병이 조기에 발견될 수 있어야 하며 질병의 자연사에 있어서 질병이 비가역적인 상태로 진행하기 이전에 발견되어야 하고, 비록 조기에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효과적인 치료 혹은 관리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직업병은 조기발견이 힘든 경우가 많고, 조기에 발견되어도 대부분 폭로 중지 이외에는 특이한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상 소견율이나 유병률이 높으면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예방의 중요성이 더 클 수 있다.

건강진단 기록 체계가 전산화되어 근로자 개인의 건강진단 결과가 검진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관된다면 활용되는 영역이 보다 확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 체계의 합리적인 조정과 전산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현행 3년간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건강진단관리 기록 관련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

횡적 건강진단 결과의 검진기관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결과 판정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2) 건강 생활 습관의 집단적 실천의 효과 판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3) 부서별, 유해물질별, 회사별로 이상 소견자의 이상 소견율을 비교하여 대략적인 원인을 찾아 예방이 가능하다.

4) 부서별, 유해물질별, 회사별로 유병률을 비교하여 대략적인 원인 및 직업 관련성 질환, 직업병을 발견할 수 있다.

5) 작업환경 개선의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건강진단 결과의 총괄적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검진기관 결과 판정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질환별 유병률이 가장 높은 검진기관과 가장 낮은 검진기관의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각종 정도관리의 근거로 이용하고 기관별 판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2) 건강생활습관의 집단적 실천의 효과 판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3) 유해물질별, 회사별로 이상 소견자의 이상 소견율을 비교하여 대략적인 원인을 찾아 예방이 가능하다.

4) 유해물질별, 회사별로 유병률을 비교하여 대략적인 원인 및 직업 관련성 질환, 직업병을 발견할 수 있다.

5) 작업환경 개선의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근로자 건강진단은 일부 개선할 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많은 비용을 지불해가며 이루어지는 건강진단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이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근로자 건강진단이 근로자의 건강증진, 질병의 1차 예방, 일반질환과 직업병의 조기발견 및 추구관리를 위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참 고 문 헌

- 노동부(노동부예규 제189호) :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규정, 서울, 1991
-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서울, 1990
- 대한산업보건협회 : 일반건강진단종합연보, 서울, 대한산업보건협회 일반건강진단기관기술협의회 1990, 7-24
- 대한산업보건협회 : 특수건강진단종합연보, 서울, 대한산업보건협회 특수건강진단기관기술협의회 1990, 7-24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개정판 지역사회의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147-162
- 이승한, 이원철, 김형아, 장성실 : 특수건강진단의 건강관리구분과 그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연구논문집 1992 : 1-69
- 이정권 : 정기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고혈압환자가 이용한 치료방법, 가정의 1989 : 10(12) : 1-9
- 임현술, 김현, 정해관 : 철강공장 근로자 중 난청 유소견자의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 대한산업의학 회지 1992;4(2) : 190-198
- 정해관, 김정순, 문옥륜, 임현술 : 특수건강진단에서 발견된 고혈압 및 간질환 유소견자의 건강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의학회지 1992;25(4) : 343-356
- 조규상 편 : 개정증보 산업보건학, 서울, 수문사, 1991, 33-62
- 한국산업위생학회 : 한국 산업위생의 뿌리와 가지, 서울, 1992, 7-86
- Hutchison GB : Evaluation of Preventive Services. Schlberg HG, Shedon A, Baker F ED : Program Evaluation in the Health Fields. Behavioral Publications, New York, 1968, 59-72